



막새 破片이 發見되였다.
이 塔은 永嘉誌에 보이는 「月川 甄塔」으로 推定된다.
그 位置를 明示하되 「在 瓮泉 驛 南 玉山 之 北」이라 있는데 벽
절 部落은 中央線 鐵道가 通過하는 瓮泉 部落 南方에 位置
하며 塔址 後山이 玉山임으로 「月川 甄塔」에 비겨도 無妨
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永嘉誌에는 「五層中有石佛」이
라고 있어 原來五層이었던 모양이고 「石佛」은 地表上에
서는 찾을 수 없다.

原城 上院寺 石塔 發見의 金銅佛 四軀

李 浩 官

一九六四年 五月 八日 江原道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雉岳山 所在 上院寺
境內의 右側 石塔 補修時에 塔身에서 住持 卍 氏에 依하여 金銅佛 四軀
가 發見되였다는데 몇層塔身에서 發見된것인지는 確實치 않다. 사진에 나
타난것을 보면 觀音菩薩坐像, 仁王像, 阿彌陀佛立像, 釋迦如來立像의 四
軀인데 藏置狀態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遺憾이다. 觀音菩薩坐像은 花冠
을 썼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손을 그 위에 얹었고 오른쪽 발
옆에는 淨瓶같은 것이 놓여 있다. 仁王像은 頭光이 있고 오른쪽 손에는
武器類를 들고 있는 것으로서 이 두 佛像은 大體의 으로 그 手法에 特異
한 點은 없다. 釋迦如來立像은 蓮臺위에 直立하였으며 別로 損傷이 없
는 完形에 가까운 佛像이다. 阿彌陀佛立像은 다른 佛像三軀와는 달리
注目되는 것으로 그 크기가 가장 크며 蓮臺에 舟形光背를 갖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光背는 上部가 破損되어있는 部分이 보이거나 佛像自體는 完形
이다. 사진으로 보아 釋迦如來立像이나 阿彌陀佛立像의 製作手法이 매
우 優秀하여 新羅佛佛으로 推測된다. 이들 四軀의 佛像에 對한 자세한
內容에 대하여는 現地調查後 紹介될 것이다.

考古美術 뉴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八次)

八月三日 文財管局 會議室에서 石窟庵調查團報告에 이어서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載元 金元龍 黃壽永 外 局課長. 附議案 如左

一、補修關係

가, 傳首靈王陵同王妃陵補修費 可決

나, 丁茶山遺蹟補修費 否決

다, 佛國寺觀光호밀增築件(但園池는 調査한) 可決

라, 石窟庵本尊白毫復原 黃委員에 委任하여 方案講究키로함

마, 서울文廟 지붕改修工事 可決

二、指定關係

가, 青磁象嵌雲鶴大瓢形瓶重復指定解除申請(國博)國寶 一一六號로 하고 寶物

三四一號는 削除키로 한다.

나, 서울文廟……成均館制度를 保存하기 위하여 全域을 史跡으로 指定한다.

다, 馬山日本城……「本丸」만 保存하고 其他는 解除

라, 水原華寧殿의 史蹟解除를 保留한

三、其他

設計圖檢討……事前에 委員에게 說明키로 하고 保留

指定文化財(寶物 三三四, 三二五, 二〇八)를 東大博物館으로 移管……保留

高靈古墳壁畫保存費補助 可決

辛州山城現狀變更調查報告(落石은 運搬 可한)

建議書(國旗宣揚會(南大門太極章) 및 大韓佛敎曹溪宗(文化財委員)으로 參與

要請

水原城廓設計變更……可決 但專門委員으로 現地檢討할 것

文化財海外流出防止協調依頼件……可決(金載元委員提案)